

예수님을 닮아 사는 우리들의



제 2139호 2020. 6. 7.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제1독서 : 탈출기 34,4ㄱㄷ-6.8-9

제2독서 : 코린토 신자들에게 보낸 둘째 서간 13,11-13

복 음 : 요한 복음서 3,16-18

발 행 : 천주교 서울대교구 청소년국 초등부

주 소 : 03083 서울특별시 중로구 대학로 156 가톨릭 청소년회관 내 '작은마음'

이메일 : littlemm1@hanmail.net

시각장애인을 위한
음성변환용 바코드



그림_ 서예회 발레리아

하느님께서는 세상을 너무나 사랑하신 나머지 외아들을 내주시어, 그를 믿는 사람은 누구나 멸망하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얻게 하셨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것은, 세상을 심판하시려는 것이 아니라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는 것이다.



하나 되는 우리

작은마음 친구들 잘 지냈어요? 요즘 주일마다 대축일을 계속 보내고 있어요. 주님 승천 대축일, 성령 강림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그리스도의 성체 성혈 대축일, 지극히 거룩하신 예수 성심 대축일. 이중에 오늘은 지극히 거룩하신 삼위일체 대축일이예요.



4성북지구 석관동 성당
안주환 요셉 신부님

삼위일체는 성부와 성자와 성령께서는 한 분인 듯한 분 아닌 한 분 같은 하느님이에요. 또 반대로 말하면 하느님은 한 분이시지만 세상을 창조하신 아버지 하느님, 우리를 구원하신 구세주 예수님, 또 우리를 거룩하게 하시는 성령, 이렇게 셋으로 계신다는 말이에요. 하나가 셋이고 셋이 하나라는 어려운 이야기가 바로 삼위일체예요.

우리가 태양을 보면 눈에 보이는 태양이 있고, 태양에서 나오는 빛이 있고, 또 태양에서 나오는 열이 있지요. 이렇게 태양에는 태양과 빛과 열이 나타나지만 사실 태양은 하나예요. 태양에서 빛과 열을 따로 떼어낼 수 없듯이 하느님도 성부, 성자, 성령의 한 분 하느님이세요. 그리고 삼위일체는 사랑



그림_ 이서진 열리사벳

안에서 하나이고 우리도 하느님을 사랑하면 하느님과 하나가 될 수 있어요. 가족이 서로 사랑하기 때문에 한 가족이 되듯이 사랑하면 하나가 되는 거예요. 우리 작은마음 친구들도 많이 사랑하며 하느님 안에서 모두 하나가 되었으면 좋겠어요.

⑬



*퍼즐 조각을 모아서 붙이면 하나의 예쁜 그림이 완성된답니다.



하느님께서 아들을 세상에 보내신 이유는 무엇인가요?

- ① 세상을 심판 하시려고
- ② 세상이 아들을 통하여 구원을 받게 하시려고
- ③ 벌 주시려고

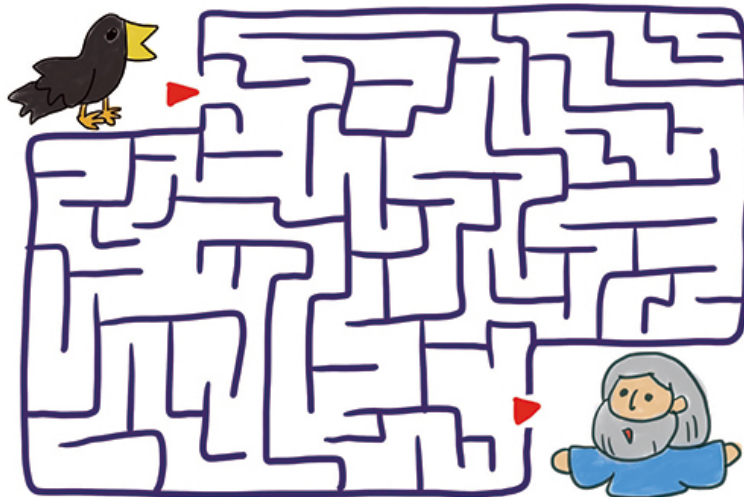
♥ 뚝뚝뚝! 예수님, 우리 왔어요. ♥

도란도란
성경공예방

엘리야와 까마귀 (열왕기 상권 17,2-7)

주님의 말씀이 엘리야에게 내렸다.
“이곳을 떠나 동쪽으로 가, 숨어 지내라.
내가 까마귀들에게 명령하여 너에게 먹을 것을 주도록 하겠다.”
엘리야는 주님의 말씀대로 요르단 강 동쪽에 있는 크릿 시내로 가서 머물렀다.

* 열왕기 상권 17,2-7을 읽고,
까마귀가 엘리야에게 먹을 것을 줄 수 있도록 미로의 길을 찾아주세요.



그림_이지영 카타리나

7화 복음 환호송



우리들 성당
주일학교 친구들

모두 일어서십시오.



알렐루야



알렐루야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꼭바로 일어나!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 받으소서.



알렐루야



◆ 우리는 그리스도의 마음을 지니고 있습니다. (1코린 2,16) ◆

작은생명

부터 사랑하는 우리들의 약속

4. 공동의 집

안녕하세요, 여러분! 우리는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아름다운 지구에 살고 있습니다.
프란치스코 교황님은 지구를 우리 인류와 자연이 함께 살아가는 ‘공동의 집’이라고 하셨어요.
지구는 우리와 함께 삶을 나누는 형제자매 같기도 하고, 두 팔 벌려 우리를 품어주는 아름다운 어머니가 되어주기도 하지요.



“하느님께서 보시니 좋았다 (창세 1,25).”
고 성경 첫머리에 나타나 있듯이, 하느님께서 창조하신 것은 작은 들꽃부터 드넓은 바다와 하늘까지 모두 신비롭고 사랑스러운 존재입니다. 하느님께서는 이 좋은 자연과 생명을 우리 인간에게 선물로 주시어 잘 돌보게 하셨습니다.

이 선물을 책임 있게 지키고 함께 가꾸기로 하느님과 약속해요.

글 - 가톨릭대학교 생명 대학원 독서동아리 '공책'

* ‘공동의 집’을 잘 돌보기 위해 우리가 할 수 있는 일들을 찾아 실천하여, 하느님과 우리의 아름다운 약속을 지켜보아요.

- ♣ 지구를 위하여 기도하기
- ♣ 창세기 1장 28-29절 읽고 쓰기 (필사)
- ♣ 프란치스코 성인의 태양의 찬가 노래 부르는 영상 찍기

여러분의 ‘작은생명’ 실천사례를 보내 주세요. 선정된 어린이에게는 선물을 보내드립니다.

양식: 사진, 그림, 기도문, 글 등 (기한 : 2020.6.30.) 접수처: littlevita2020@naver.com



오늘의 미사

★ 화답송 ◎ 세세 대대에 찬송과 영광을 받으소서.

★ 복음 환호송 ◎ 알렐루야.

○ 지금도 계시고 전에도 계셨으며 앞으로 오실 하느님 성부 성자 성령은 영광받으소서.

◎ 알렐루야.

★ 영성채송 너희가 하느님의 자녀이기에 하느님이 당신 아드님의 영을 너희 마음에 보내셨다. 그 영이 “아빠! 아버지!” 하고 외치신다.